

통일 한반도가 되면 북한을 보고 있는 인공위성들은 어떻게 될까. 한 가지 장담하건대, 통일이 오거나 군사적 긴장감이 줄어들었다고 한반도에서 인공위성의 역할이 사라지거나 줄어들진 않을 것이다. 군사적 이용과 주민을 위한 활용은 한 곳 차이에서 발생한다. 인공위성의 역할은 통일 한반도에서 여전히 유효할 뿐 아니라, 넓어진 우리의 국토를 스마트하게 가꾸고 활용하는 가장 기초가 되어줄 것이다.

에필로그 중에서

지구를 향한 우주기술, 군사 정찰을 넘어 한반도의 일상으로



2020년대 들어 우주에 대한 인류의 관심은 더욱 뜨겁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지구로 한정되어 있던
인류의 영역을 우주로 확대한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지구가 아닌 새로운 터전을 찾지는 못하였고,
많은 우주기술은 지구를 향하고 있다.
그 지구를 향한 우주기술은 바로 '인공위성'이다.

1장 '우주에서 한반도를 보는 방법' 중에서

값 18,000원

ISBN 979-11-7117-324-2 03300



우주에서 본 한반도



북녘을 향한
물음에

인공위성이
답하다

임철희 지음

21세기북스



우주에서 본 한반도

북녘을 향한
물음에

인공위성이
답하다

임철희 지음

증강현실(AR)
기술
활용 도서

21세기북스 ×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임철희

멀리서 경치 보는 것을 좋아하다가, 우주에서 지구를 보고 있는 환경학자.

2021년부터 국민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로 인공위성으로 지구의 산림·환경변화를 관찰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를 전망하고 있다. 고려대학교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받아, 기본적으로 과학자이지만 남북협력과 환경·산림·기후정책 등을 폭넓게 연구하며 융합학자로 살아가고 있다.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100여 편의 학술논문을 게재하였으며, <이탄지 토지이용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지역단위의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 <인공지능 기반 기후변화 적응형 산림재해 저감기술 개발> <한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남북과학기술 협력방안 연구> 등 50편 이상의 연구보고서를 출간하였고, 《Climate-Environmental Impacts on Agriculture and Water Balance》《The Water, Energy, and Food Security Nexus in Asia and the Pacific》 등의 저서를 집필했다.